

신혜선 “예술에 문외한...로망은 있어요”

KBS 2TV '단, 하나의 사랑' 신혜선·김명수

쉽고 명료한 스토리라인·주연 남녀의 신선한 호흡 호흡 김명수 “로맨스 호흡 참 좋아...순수·애절한 사랑 기대”

수목극 1위를 달리는 KBS 2TV '단, 하나의 사랑'의 안정된 시청률은 쉽고도 명료한 스토리라인과 더불어 주연 남녀의 신선한 호흡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다.

시력을 잃었다 되찾은 발레리나 이연서 역의 신혜선과 그를 지키는 천사 김단역의 김명수가 12일 여의도 KBS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작품이 순항하는 덕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김명수는 “맡은 역할에만 충실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신혜선은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인사했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상처 많고 예민한 발레리나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신혜선에 관심이 집중됐다.

신혜선은 “연서가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다녀왔다. 눈앞이 정말 하나도 안 보였는데 막상 어두운 곳에 있다 보니 시선이 한군데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작품에 몰입한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연서가 바닷가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꼽았다.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단어가 아귀처럼 우는 모습에 저도 감정이 ‘찌르르’ 왔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명수는 “혜선 씨가 춤을 잘 춰서 감정 이입이 잘 됐다”며 팀워크를 강조했다.

신혜선은 전작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사의 찬미’에서는 가수 윤심덕으로, 이번에는 발레리나로 변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예

술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본을 보면 예술가들 특유의 고뇌가 보이는데 그게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나 봐요. 문외한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로망이 생겼고, 그걸 잘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기술을 단기간에 다 익히기는 어렵지만, 외형만이라도 예술가처럼 보이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연기가 호평받는 데 대해 “KBS에서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을 했는데 1년 뒤에 또 이렇게 큰 빛을 주셔서 감사하다.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명수 역시 순수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하는 김단 역으로 주목받는다.

그는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면이 있는데 단이는 유쾌하고 텐션이 높으니 주변에서 오히려 귀엽게 봐주시는 것 같다”라며 “무거운 분위기에서 저 혼자 밝게만 연기하는 부분에서 돈을 잘 조절하려 노력했다. 후반부에는 우여곡절도 많고 진지한 부분도 많아진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로맨스도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미 단과 연서의 로맨스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더 좋은 호흡이 나올 거예요. 특히 두 사람의 과거가 아련하면서도 설레게 펼쳐질 겁니다.”(신혜선)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귀여우면 귀여운 대로 참 좋은 호흡입니다. 후반부를 특히 기대해주세요.”(김명수)

/연합뉴스



KBS 2TV '단, 하나의 사랑' 간담회에 참석한 신혜선(왼쪽)과 김명수.

뜨거운 축구의 밤...시청률 이란전 15.6%·U20 준결승 11%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 이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까지 그야말로 '축구의 밤'이었다. 12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8분부터 9시 57분까지 KBS 2TV가 중계한 한국 축구대표팀과 이란 대표팀 간 평가전 시청률은 15.6%를 기록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20.3%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어 이날 오전 3시 30분부터 5시 21분까지 KBS 2TV, MBC TV, SBS TV 지상파 3사가 방송한 U-20 준결승 한국-에콰도르전 실시간 시청률(ATAM 집계)은 새벽 중계임에도 11.01%로 집계됐다. 방송사별로는 SBS TV 4.83%, MBC TV 3.98%, KBS 2TV 2.2% 순이었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연합뉴스

유재석, tvN 예능 '일로 만난 사이' MC 맡아

국민MC 유재석(사진)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이어 새 예능 '일로 만난 사이'의 MC를 맡아 또 한 번 tvN과 손을 잡는다. tvN은 유재석이 출연하는 '일로 만난 사이'에 '노동일링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았다. 출연진이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서 땀흘려 일하고 번 돈을 좋은 일에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방송에 앞서 이날부터 일손이 필요한 현장의 신청을 받는다. 일손을 원하면 누구나 tvN 홈페이지(http://chtnv



com / laborhoodonhire)에서 작업 내용과 시기, 일일 급여 등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연출은 JTBC '효리네 민박' 시리즈를 연출한 정효민 PD가 맡았다. JTBC에서 tvN으로 이적한 후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주진모·민혜연 웨딩화보 공개...“축복 속 예식”

최근 부부가 된 배우 주진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씨 측이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12일 “많은 분의 축복 속에 주진모의 결혼식이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제주도과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으로 결혼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주진모와 신부의 행복한 한때가 담겼다. 사진 속 주진모는 결혼을 앞둔 새신랑답게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멋을 낸 모습이다.

두 사람은 지난 1일 제주 씨에스 호텔&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연합뉴스



신부는 서울대 출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각종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0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밤(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나의 독립 영웅(재)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태양의 계절(재)	00 12 MBC 뉴스 25 2019 MBC 특별생방송 힘내라 중소기업UP	00 SBS 12 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3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서사 콩도령 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15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차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16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5 BBB삼삼사의 모험(재) 55 이몽(재)	00 뒤뚱뚱 로그인 코리아 55 닥터 365
17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8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19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
20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1	00 KBS 뉴스9			
22	00 KBS 스페셜 55 오돌보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절대 그이
23	35 UHD 습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05 섹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24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색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05:30 통일의 길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다큐동화 달팽이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퍼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19:00 레이디버그
07:15 띠띠뽀 띠띠뽀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3:40 다큐 시선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퍼 피그	14:30 띠띠뽀 띠띠뽀(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1~2	14:45 용감한 소방차 레이(재)	<파란 나라 필리핀 4부 세계 최고의 섬 필리핀>
08:30 피피루 안전특공대	15:00 탐원 구조대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나무에 취하다 4부 나무, 너를 품 안에서>
09:00 마사와 곰	15:45 꼬마히어로 슈퍼잭(재)	21:50 다큐 시선
09:30 물랑	16:00 예술아 놀자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피피루 안전특공대(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10:30 한국기행(재)	16:30 땡땡땡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음 5월 11일 辛巳)

<p>子 36년생 작은 일에 매달리다 보면 큰일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48년생 미진함을 보충하는 기쁨이 보인다. 60년생 기쁨이 조성 되리라. 72년생 세밀한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망된다. 84년생 기초부터 다시 손봐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86, 98</p>	<p>午 42년생 희망의 문턱에 들어서게 되리라. 54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66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선입감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78년생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90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행운의 숫자 : 59, 21</p>
<p>丑 37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접한다. 49년생 꼭 잡아야 한다. 61년생 사소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 73년생 이해관계 때문에 원만했던 상대와 갈등이 생길 수다. 85년생 쉽게 장담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행운의 숫자 : 92, 28</p>	<p>未 43년생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55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크므로 과신하지 말라. 67년생 애매할 것이다. 79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91년생 중용을 유지해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57</p>
<p>寅 38년생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50년생 결과의 차이를 수박에 없다. 62년생 공연히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74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86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89, 24</p>	<p>申 44년생 활달해 들어가고 있다. 56년생 경합을 벌이는 동세이다. 68년생 초석이 될 만한 계기를 마련하는 운로라 할 수 있겠다. 80년생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 회생하여 기쁘겠다. 92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행운의 숫자 : 12, 51</p>
<p>卯 39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51년생 따질 계제가 아니다. 63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생산적인 시국으로 이끈다. 75년생 미끼일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87년생 바람직한 방향인지 진로를 확인 해 보자. 행운의 숫자 : 27, 48</p>	<p>酉 45년생 실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긍하게 되는 마당이 될 것이다. 57년생 망망대대의 일엽편주이다. 69년생 너무도 비슷하여 혼란에 빠질만하다. 81년생 주관과 소신은 가지도 대세에 편승하라. 93년생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0, 89</p>
<p>辰 40년생 속마음을 털어 놓고 상의해 본다면 해결점을 도출할 수 있다. 52년생 희망의 물꼬를 트는 변화가 나타난다. 64년생 쫓대를 갖고 소신껏 행하면 협조자가 생길리라. 76년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88년생 가깝스로 모면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53</p>	<p>戌 34년생 균형과 실용이 중할 때이니 인간관계의 처세에 신경 써야겠다. 46년생 절대로 무리수는 두지 말라. 58년생 판국을 뒤흔들 수도 있는 위력이다. 70년생 학수고대해왔던 바가 성사 되리라. 82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서 회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36</p>
<p>巳 41년생 이심전심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53년생 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오는 것을 막으려 말라. 65년생 뜻밖의 황재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77년생 변화의 조짐이 보이니 확실히 대처하라. 89년생 선행을 하고 도 빛을 보지 못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95, 74</p>	<p>亥 35년생 소용없는 일이니 내버려 두라. 47년생 현재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59년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진중하게 노력해야 할 때다. 71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83년생 분수를 지킨다면 흉사를 비껴간다. 행운의 숫자 : 06, 1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열선” ☎010-9790-8237